



책무구조도 시행 1년, 금융권 내부통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나아갈 길

Deloitte Insights



“

책무구조도 시행 1년은 금융기관 내부통제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자금 부정 통제 법제화는 내부통제를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내부통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인력·예산 등 전사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조직문화 전반에 준법과 책임 의식을 정착시킬 때 내부통제는 금융사고 예방과 신뢰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

권대현 파트너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책무구조도 시행 1년, 전환점에 선 금융권 내부통제



금융권 복잡성·디지털 전환 속
내부통제 중요성 확대

2024년 7월
책무구조도 시행

업권별 도입 시차

2025. 1

금융 지주·은행

※ 은행권, 제도 안착 중이나
사고 발생 지속

2025. 7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

2026. 7

5조원 미만:
금융투자·보험
자산 5조원 이상: 카드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로
규제환경 확장 전망



상세한 내용은 리포트 전문에서 확인하세요!

새 정부의 기조와 감독당국의 움직임

새 정부 정책 기조

-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주요 국정 과제
-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안 명시
- ✓ 책무구조도 → 임원 책임 규제 강화 가능성
- ✓ 규제 강화 흐름 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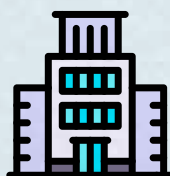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점검 강화



은행권

시범운영 → 본격 점검
(대표이사·
임원 관리의무)



보험·금투

시범 운영
+ 컨설팅/세미나 지원



PEF 운용사

연간 5개사 이상을
대상 내부통제
검사 예정 → 범위 확장

책무구조도, 실질적 내부통제 강화 장치로 정착

내부통제 강화의 현실과 과제



업권별 차이

- ✓ **은행권:** 전담 부서·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 AI 기반 이상거래탐지·리스크 관리 시스템 투자
- ✓ **비은행권:** 인력·예산 지원 미흡, 내부통제를 비용으로만 인식 → 형식적 대응 우려

CEO 책임 리스크

- ✓ 내부통제는 최고경영자의 법적 책임과 직결
- ✓ 내부통제를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로 전환 필요

고도화 필요성

- ✓ 인사 이동, 조직개편, 법규 변경, 신사업, 사고 발생 시 → 즉시 반영 필요
- ✓ **지속적 개선 사이클:**
정기 점검 → 취약점 보완 → 제도 고도화

법제화된 자금 부정 통제, 새로운 내부통제 패러다임의 핵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으로 자금부정 통제 법제화,
재무보고 신뢰성은 부정 방지·자산 보호로 초점 확장



법적 책임 강화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가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전환
→ 형식적 운영은 곧 리스크 확대

경영진 책임 부각

- ✓ 자금 부정 대응 활동까지 공시 의무 확대
→ 실질적 내부통제 운영 요구

적용 범위 확대

- ✓ 상장사 → 종속회사까지 포함

자금 사고의 특성과 주요 유형

- ✓ 전통적 절차로는 적발 어려움 → 장기간 지속, 회계부정 연계
- ✓ 해외 자회사/펌뱅킹 등에서 취약

자금 사고 주요 유형



계좌이체형

본인 계좌 활용한 횡령



거래처 관리형

가상·위장 거래처 통한 편취



단가조작형

이벤트·거래 조작 통한
고가 매입·매출



자금유용형

법인카드 남용,
가상 직원 급여 수령



효과적인 자금 부정 통제를 위한 제언

단순 준법에서 실질적 리스크 기반 체계로 고도화 필요

리스크 기반 내부통제 정착

진단



실질적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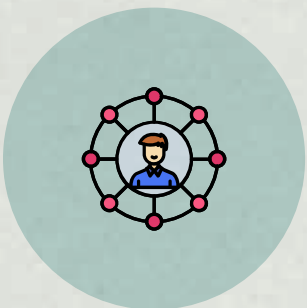
부정 시나리오 기반 식별



종속회사 범위 재검토

질적 요인 반영

모니터링



모니터링 체계 정립

익명 내부고발제도

개선



공시 수준 적정화

방어 수단으로도 기능



통제 활동 내재화

규정·업무 절차와 연계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를 위한 체질 개선 전략

형식적 절차를 넘어, 내부통제를 조직의 체질로 정착 필요



경영진 의지와 모범적 역할

- ✓ 내부통제는 최고경영진 리더십에서 출발
- ✓ 윤리·준법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

정교한 리스크 기반 통제 강화

- ✓ 재무보고 → 부정 방지·자산 보호로 확대
- ✓ 그룹 차원의 정밀 점검 및 실무 내재화

인력·예산 확충과 투자

- ✓ 내부통제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 ✓ 전담 조직·전문 인력, AI 기반 시스템 도입

지속적 관리·점검

- ✓ 책무구조도는 일회성 문서가 아님
- ✓ 주요 이벤트마다 업데이트 및 정기 점검

준법 문화 확산과 교육

- ✓ 역할·책임에 대한 체계적 교육
- ✓ 자율적 준법 의식과 책임감 고취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내부통제&내부회계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내부 통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회계 제도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실질적 해법과 실행 중심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김선호 파트너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 금융산업부문



☎ 02 6676 1117

@ sunh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 02 6676 1033

@ hyunjeong@deloitte.com

권대현 파트너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 02 6676 1327

@ daekwon@deloitte.com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의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특화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홍기 대표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2319
@ homin@deloitte.com



장형수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1168
@ hyuchang@deloitte.com



신병오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1225
@ byoshin@deloitte.com

사업부문별 리더



공선희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리더

☎ 02 6676 1264
@ sgong@deloitte.com



장문보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리더

☎ 02 6676 2319
@ muchang@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125
@ syeum@deloitte.com



이동영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304
@ dongylee@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컨설팅 부문 리더

☎ 02 6676 3625
@ anghyan@deloitte.com



김철 파트너

세무자문 부문 리더

☎ 02 6676 2931
@ cheolkim@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